

“내 강아지 왜 안오니... 한번만 안아보자”



참사 첫날 진도로 내려온 안모(72·안산시) 할아버지는 29일 오후 팽목항에서 목이 메이도록 울러대던 외손자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차가운 곳에서 떨고 있을 외손자 생각이 채워관 대신 항구에서 기다린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을 짓누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맞벌이 딸·사위 대신 3년간 직접 키워 ‘각별’

매일 구조 소식 기다리며 팽목항으로 마중

외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팽목항 바다에 서 있었다. 지난 16일 이후 손자가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데, 나 혼자 괜히 체육관에 앉아 있겠냐며 나온 게 벌써 14일째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서 바다만 바라봤다. 한쪽 눈에는 핏발이 섰지만 회색 물결 출렁이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는 외손자 최수빈(18)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태껏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8일에도 그랬다. 물살이 빨라졌지만, 이날 12명의 희생자가 물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최군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 ‘시신 찾은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진인한’ 축하 인사가 오가는데

도, 손자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혹시나 내 자식이 아닐까 이날만 12차례 시신 안치소를 찾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힘이 풀이 돌아올 때마다 할아버지도 털썩 주저앉았다. 할아버지 안씨는 외손자 수빈이를 친손자보다 더 각별하게 키웠다. 태어날 때부터 3년간 손자 기저귀를 직접 갈아줬고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분유를 타 먹이며 업어 재웠다. 추운 겨울, 감기라도 들때면 혹시나 폐렴으로 번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먼 거 한 두번이 아니다. ‘친손자 아니라 그러다’는 괜한 소리 듣는 것도 싫었고 하는 것이 귀찮기까지 해 훨씬

더 곱들여 키웠다. 그런 손자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평소엔 전화로 안부전화도 자주 하던 손자다. 바다 속 배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나오질 않는다. 할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지 바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손자가 다시 올 거라 믿고 있다. 안씨는 “손자와 평소 함께 다녔던 예매 시간을 떠올리며 손자가 좋은 곳으로 가길 매일 기도 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꼭 한 번 안아보고 싶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임준표 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200억 ‘게 로봇’ 있으나마나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투입한 장비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타대고 투입했다가 현장과 맞지 않은 탓에 사실상 방치되거나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철수한 장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비 200억원을 들여 테스트 중인 ‘다관절 해저로봇 크랩스터 CR200’(잠수정 로봇)은 진도 사고 현장에 투입된 뒤 한 차례 이용됐다가 줄곧 팽목항 인근 컨테이너(적납고)에 보관되고 있다. 이 잠수정 로봇은 지난 23일 3시간 가량

사고 해역에 투입돼 세월호 주변을 촬영한 뒤 연세가 지난 이날까지 더 이상 실종자 찾기에 활용하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초 인명구조와 수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로봇 크기(2.42×2.45×1.3m)와 무게(600kg) 제한으로 선체 진입이 불가능한데다, 2016년 7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시험 운용 중이라는 점도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잠수사들의 가이드라인(생명줄)을 비롯해 여러가닥의 줄이 세월

크레인 등 현장 안맞는 수습장비 잇따라 철수

호와 연결돼 있어 풀이 어렵까 조심스럽다”면서 “만에 하나 잠수정 로봇 케이블과 가이드라인이 얽히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 걱정돼 투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정 로봇과 함께 세월호 인양작업을 위해 사고해역 인근에서 대기하던 해상크레인도 최근 일부가 철수됐다. 사고해역에는 이날 현재 크레인 1대만 계류중이며 나머지 4대는 현장을 떠났다. 삼성중공업 소속 8000t급 ‘삼성5호’와 3600t급 ‘삼성2호’ 등 해상크레인 2대는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26일 거제조선소로 복귀했다.

대우조선해양도 3600t급 해상크레인 ‘옥포 3600호’를 지난 25일 거제조선소로 복귀시켰다. 앞으로 인양작업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의 플로팅 도크는 영암의 조선소에서 대기 중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해양생태 관찰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크랩스터(잠수정 로봇)를 여론과 해수부 요구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진도로 내려보냈다”면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래 목적과 다르게 투입돼 우리도 얼마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내 토굴 앞의 바닷가에 서서, 진도 바다에서 일어난 참사에 희생된 영령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한다.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내 생질이 부산 해양대학교 엘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바다는 인류 미래의 블랙박스이다. 육지의 지하자원을 다 파먹은 다음에는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넘보고, 일본과 중국이 섬 하나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그 섬 주위의 바다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 땅은 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아시아의 아래쪽에 자리한 반도에 사는 우리는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시는 안 된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바다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오만

저한 감시와 안전장치의 검열을 시킬 줄 거친 것이라고 믿고 그 배를 타는 것이다.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바다 여행을 하는 것은 이 나라 해양경찰의 해안구조 실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배를 믿은 302명의 탑승객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온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되었다. 우리는 성난 얼굴로 돌아보고 내다보아야 한다. 소를 잃었다고 절망만 하지 말고, 이제 외양간을 완벽하게 고쳐야 한다. 한반도의 항·포구를 드나드는 모든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배가 완벽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허가과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이 타는 배를 목숨처럼 사랑하도록 적정 임금을 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퇴임 공무원과 선박검사 기구 직원들의 마피아 조직 같은 것도 척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산다는 것

했던 것은 바다를 제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임진왜란 때 이 땅의 도공들을 잡아다가 도자기를 구워 영국·프랑스·이태리·스페인의 귀족들에게 팔아 부를 축적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세계대전을 치를 수 있었다. 이번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는 일본에서 구해 온, 20년 된 낡은 것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왜 일본의 낡은 배를 사다가 쓰는가. 내가 그 배에 탔다면 나도 죽었으리라. 배 안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대로 따랐을 테니까. 배에 탄 어느 누구인들 그 방송을 믿지 않았으랴. 인간이 배를 타는 것은 배의 구조적인 안전장치, 태풍과 쓰나미를 만나지 않는 한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배가 파도 속에서 기우뎠거지지만 오뚜기처럼 일어 서곤 한다는 것, 난파되더라도 구명정을 타거나 구명대를 입으면 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선장의 항해 실력을 믿는 것이다. 나라의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믿듯이 그 배의 기능과 선원들을 믿는 것이다. 모두들 선진 대 한민국의 해양수산부와 선박검사 기구와 항해 허가 기구와 해양경찰청의 철

이번에 방재 체계나 지휘 체계가 허술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 삶은 구조적으로 방만해진 채 썩어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달콤한 환혹(幻惑)은 마약처럼 우리들을 방만하게 했다. 정해진 규정을 엄정하게 지켰는지, 따지지도 않은 채 “괜찮아, 괜찮아” “됐어, 그냥 넘어가” 하는 적당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거추장스러워 했다. 혹시, 모든 규제를 암 덩어리처럼 생각하고 척결하려 했던 분위기를 타고 바다와 항포구의 선박과 운항에 관한 규제들까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살기는 후진국의 구조에 살면서, 약간 너덕해진 법과 술 그리고 명품과 아파트를 즐기고 선진국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오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슬픈 일을 당할수록 냉철해져야 한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바다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후세대들이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바다에서 낭만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바다를 가르쳐야 한다. 아울러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은 물론이고, 바다에 관한 살림살이는 바다와 선박에 대하여 무식하지 않은,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 운용하고 관리하게 해야 한다. <소설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 광주 동구 대인동 308-1, 2층상가 (대지 101.8㎡, 건물 145.4㎡)
- 광주 북구 북동 56-2 플럼빌리지(원룸) 5건 (각 호당 26.64㎡)
-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8 갤러리존 지하1층 상가 13호, 31호 (건물 38.1㎡, 건물 196.4㎡)
- 광주 남구 봉선동 85-3전, 산 61-2 임야(17,203㎡)
-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상리 412, 412-2, 412-4 주유소, 휴게소, 모텔(대지 9,142㎡ 건물 774.9㎡)

상담 후 가격 결정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62-361-3515)로 문의바랍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관리소장 채용공고

- ① 단 지 명 : 금호주택단지
- ② 소 재 지 : 광양시 금호동 회광길 12-14
- ③ 단지현황 : 5,247세대
- ④ 자격조건
 - ① 주택관리사로서 시특별교육수료한 자 (소방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자격증 보유자 우대)
 - ② 40세이상 ~ 55세미만
 - ③ 500세대이상 3년이상 관리소장 실무경험자
- 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주택관리사자격증사본, 시특별교육수료증사본, 기타서류(자격증사본)
- ⑥ 제출처 및 기한 (방문접수)
 - ① 제 출 처 : 광양시 금호동 회광길 12-14 제철회관 311호
 - ② 제출기간 : 2014년 4월 30일(수) 17시까지
 -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⑦ 채용방법
 - ① 1차 : 서류심사
 - ② 2차 : 인사위원회 면접
 - ③ 3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⑧ 문의전화 : 061799-1631 ~ 5

광양제철주택관리소